

# 융복합시대 기숙사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

박성주  
김천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The Effects of Self-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Dormitory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in Convergence Age

Sung-Joo Park

Dept.of Counselling Psychology, Gimcheon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시대 기숙사 고등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D지역 소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3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은 학교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하위요인인 낙관성, 호기심, 감정통제 역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지지도 학교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하위요인인 친구지지와 교사지지 역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융복합시대를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학교부적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며, 사회적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개개인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추후 종단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 고등학생, 융복합시대

**Abstract**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dormitory high school students in the convergence age. For achieving this purpose, a survey with 358 students in 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situated in D area was conducted. For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SPSS WIN 20.0.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ego-resilience positively affected school adjustment, and optimism, curiosity and emotional control, which are sub-factors of ego-resilience, positively affected it, too. Also, social support positively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and peer support and teacher support that are sub-factors of social support, positively influenced it, too.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developing various programs and school culture for improving ego-resilience and providing social support to prevent a lot of problems caused by school mal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in the digital convergence era will positively influence individual students, schools, families and furthermore general sections of the society, and diverse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studies on this will serve as the foundation for future longitudinal research.

**Key Words** : Self-resilience, Social support, School adaptation, High school students, Convergence ag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4 Gimcheon University Research Grant

Received 2 December 2015, Revised 13 January 2016

Accepted 20 February 2016, Published 28 Febr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Sung-Joo Park(Gimcheon University)

Email: loadpsj@gimcheo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 1. 서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사회구조나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산업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왔다. 그로 인해 끊임없는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 핵가족화 등 너무나 급변하게 되면서 사회의 많은 부작용과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들 역시 적응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그 요구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겪어야하므로 정서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정서적 충동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정서적 충동 발생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로 만약 그들이 정서적 갈등에 직면했을 때, 이 갈등을 재조직하고 잘 대응하면 새로운 적응 상태를 맞이할 수 있으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점차 무기력하게 되고,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부적응 상태를 초래하며, 건강을 해치는 질병 및 정신장애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1].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 사회적 역할의 재정립으로 인한 혼란, 학업에 대한 부담감, 실패나 좌절의 경험, 직업에 대한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할 수 있다[2].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들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특히, 자살과 학교 폭력, 가출 및 비행청소년 등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의 부적응에 의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 지고 있다. 특히, 가정의 다양한 문제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정서적인 소외를 경험하거나 느끼게 될 때 그들은 부적응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인 지지는 부모나 교사, 학교 친구들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에서 경험하게 긍정적인 자원으로 타인에게 사랑받고 스스로를 가치 있고 존

중받는다는 감정이다[3].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의 부적응이 일어날 것이다[4]. 또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설명들이 있으나, 최근 자아탄력성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개인의 과정이자 능력이며,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 동원하는 문제해결능력[5] 또는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6]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문제나 다양한 일반적인 문제에 있어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다양한 스트레스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일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숙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기숙사 고등학교에 있는 고등학생들인 경우 일반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 학업적 스트레스가 더욱 많을 수 있으며, 학교와 가정, 친구 관계의 분위기 역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일반학교의 학생들과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대부분의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생들인 경우 일반학교의 학생들과 달리 자신의 공부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고 학습에 대한 주도적인 특성이 높을 수 있지만 오히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문제와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이 생겨나고 있기에 그들의 심리적인 특성인 자아탄력성에 따라 학교생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일반학교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의 영향[7]과 청소년의 부적응적 사고[8], 공격성[9], 스마트폰중독[10]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숙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에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지도, 활동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 기숙사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여 그들을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다양한 특목고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하고 돕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하위 요인(낙관성, 대인관계, 호기심, 감정통제, 활력성)들은 학교적응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사회적지지는 학교적응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하위 요인(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들은 학교적응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D지역 소재 기숙사 고등학교 1~2학년 38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4년 9월 설문조사 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358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 2.2 측정도구

#### 2.2.1 자아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박은희[11]가 자아탄력성 측정을 위해 O'Connell Higgins(1983)와 Block & Kremen(1996)의 연구들을 기초로 개발한 척도를 신지연[12], 김미향[13]이 재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 ER)는 체계의 유지나 증진을 위해서 환경맥락이 요구하는 기능인 자기-통제 수준을 조정하는 역동적인 능력인 자아탄력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영역으로는 원만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인관계, 개인의 심리적인 에너지에 관한 활력성, 인내심 등에 관한 감정통제, 집중과 관심에 관한 호기심, 자신감 및 긍정적인 특성의 낙관성 등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점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하였고

반대의 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이 검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낮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37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이 질문지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Table 1) Ego-Resiliency Sub-factors Number

Sub-factors	Number
Interpersonal	1, 5, 9, 14, 19, 23, 28, 33
Active	2, 6, 10, 15, 20, 24, 29, 34
Emotional control	11, 16, 25, 30, 35
Curiosity	3, 7, 12, 17, 21, 26, 31, 36
Optimism	4, 8, 13, 18, 22, 27, 32, 37

#### 2.2.2 사회적지지 척도

Dubow와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평가 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김명숙[14]이 번안한 것을 토대로, 박지원[15]과 황윤경[16]이 수정, 보완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SSAS척도는 자신이 사랑을 받고, 가족과 또래 및 교사들로부터 관심 있는 대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며, 사회적 관계망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하위척도로는 가족지지(8문항), 또래지지(8문항), 교사지지(8문항)에 대해 총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5점)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채점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24점~120점이다. 사회적지지 평가 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4이었다.

(Table 2) Social Support Sub-factors Number

Sub-factors	Number
Family Support	9, 10, 11, 12, 13, 14, 15, 16
Peer support	1, 2, 3, 4, 5, 6, 7, 8
Teacher support	17, 18, 19, 20, 21, 22, 23, 24

#### 2.2.3 학교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적응검사는 김용래[17]가 제작하였고, 총 41개 문항으로 학교의 환경적인 측면과 교

사, 또래와의 관계적인 측면 등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학년 학생들의 문장의 뜻이나 낱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이다. 이 질문지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bach’s α)는 .917이었다.

<Table 3> School Adaptation Sub-factors Number

Sub-factors	Number
Friend Relationship	17, 18, 19, 20, 21, 22, 23
Teacher Relationship	4, 24, 25, 26, 27, 28, 29, 30, 31, 32
School Environment	5, 7, 9, 10, 11, 12, 13, 14, 15, 16
School	33, 34, 35, 37, 38, 39, 40, 41
School Life	1, 2, 3, 6, 8, 36

###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값은 8.381(p=.000)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학교적응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000에서 70.248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sup>2</sup>=.249로 24.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Effects of ego-resiliency on School Adaptatio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D	β	t	p
	Constant	.295		2.045	.042
Ego-Resiliency	School Adaptation total	.088	.502	8.381	.000

R<sup>2</sup>=0.249, F=70.248(p=0.000)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하위요인인 낙관성, 호기심, 감정통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각 2.974, 2.948, 3.119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6.4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sup>2</sup>=.269로 26.9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912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하위척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Effects of ego-resiliency factor on School Adapta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D	β	t	p	Tolerance limit
	Constant	.296		1.941	.054	
	Optimism	.078	.204	2.974	.003	.743
	Interpersonal	.092	-.059	-7.14	.476	.518
total	Curiosity	.079	.228	2.948	.004	.586
	Emotional control	.011	.235	3.119	.002	.618
	Active	.075	.086	1.219	.224	.702

R<sup>2</sup>=.269, F=16.400(p=0.000), Durbin-Watson=1.912

### 3.2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한 결과, t값은 9.880(p=.000)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97.618이며, 회귀식에 대한 R<sup>2</sup>=.319로 31.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chool Adaptatio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D	$\beta$	t	p
Social support total	Constant	.225		3.850	.000
	School adaptation total	.068	.565	9.880	.000

$R^2=0.319$ ,  $F=97.618(p=0.000)$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에 따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또래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5.192, 교사지지의 t값이 5.838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 유의미수준에서 학교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43.163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386$ 로 38.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2.125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족지지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Effects of Social support factor on School Adapta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D	$\beta$	t	p	Tolerance limit
School adaptation total	Constant	.229		2.082	.039	
	Family Support	.049	.029	.439	.661	.699
	Peer support	.070	.345	5.192	.000	.676
	Teacher support	.074	.367	5.838	.000	.754

$R^2=0.386$ ,  $F=43.163(p=0.000)$ , Durbin-Watson=2.125

####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교적응에 끼치는 요소를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라고 가정하여 그것들을 조사함으로써 청소년의 지도, 활동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 청소년에 대해 더 잘 이해하여 그들을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학업의 스트레스에 더욱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기숙사 고등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돕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여 D지역의 기숙사 고등학생 3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자아탄력성과 학교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결과, t값은 8.381( $P=0.000$ )으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하위영역으로는 자아탄력 낙관성, 자아탄력 호기심과 자아탄력 감정통제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이 잘 된다는 연구결과를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자아탄력 대인관계, 자아탄력 활력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기숙사 고등학생들은 자신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학업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얼마나 궁금해하는가에 따라 더욱 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면 할수록 학교 적응역시 잘 된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이는 성순옥 외[18], 이명순·김종운[19], 박경진·박영준[20], 전해선[21], 신윤지[22] 등의 연구결과에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아탄력성 중 대인관계나 활력성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으며, 이는 아직 청소년들이 대인관계나 활력성에 대한 자아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특히, 기숙사 고등학생의 경우 대인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사고와 개인의 학업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더욱 그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긍정적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낙관성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자아탄력성의 낙관성을 길러준다면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업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과 학습방법을 제공하여 자아탄력성의 호기심이 강화되어진다면,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학교적응을 위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정통제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명상을 하거나, 감정을 풀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나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부적응학생들의 예방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결과, t 값은 9.880(p=.000)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친구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지지가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다고 나타났으며, 이는 김명숙[14], 박새와 [8], 김동희·박승희[23], 구혜경·이수진[24], 박민경·서보준[25] 등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의 지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타났다. 이는 기숙사 고등학생들이 이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가족 외적인 관계를 더욱 중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가족들과는 분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교사들과 친구들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서로를 격려하도록 하여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도울 수 있으며, 사전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과 함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긍정적인 칭찬과 격려를 통해 학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학생들의 학교부적응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높여 줄 것이다.

##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4 Gimcheon University Research Grant.

## REFERENCES

[1] Y. O. Lee & J. S. Lee, "A study of the difference by development stages on daily stress, perceived environment, psychological problem of child &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Child Psychotherapy*, Vol. 6, No.1, pp. 53-79, 2011.  
 [2] Y. H. Park,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et use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case of higher level pupils in a primary school". MA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2002.  
 [3] J. A. Choi,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s and School Adjustment". MA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2012.  
 [4] Y. J. Choi,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social support and scholastic competence perception on learned helplessness, inferiority complex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Korea. 2007.  
 [5] Y. S. Lee, "Study on school stress, self-resilience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With female students at high school". MA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2004.  
 [6] J. S. Park, "Social Support Perceived by Children and Their Ego-Resilience". MA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Korea. 2009.  
 [7] S. H. Kim, "Relationship Analysis among Resilience, Academic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MA dissertation, Soonchenhyang University, Korea. 2012.  
 [8] S. W. Park, "Relations among Daily Stress, Ego resilience, Hope and Social Support Affecting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MA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2012.  
 [9] H. S. Je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ladaptive Thoughts Ego-resilience and Aggression in Adolescents". MA disserta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3.  
 [10] B. W. Kim & K. A. Jung, "The Differences of the Ego-Resilience and Disagreement in Parents' Rearing Attitude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299-308, 2015.  
 [11] E. H. Park, "The Relationships between Ego-resilience, IQ and Academic Achievement". MA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1996.

- [12] J. Y. Shin,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ren on Ego-resilience of Students in middle School". MA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orea. 2004.
- [13] M. H. Kim, "The Effect of Ego-resilience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MA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2006.
- [14] M. S.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of children". MA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1995.
- [15] J. W. Park, "Research work for the social support scale development". Ph. 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1985.
- [16] Y. G. Hawng, "A Study on Social-Support Perceived by Adolescents peer-group and Psychosocial Maturity". Ph. D.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Korea. 1995.
- [17] Y. R. Kim, "An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Contribution Variables toward Academic Achievement". Ph. D.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Korea. 1993.
- [18] S. O. Sung., M. D. Park & Y. H. Kim,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Correlation between School Stress and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0, No. 8, pp. 49-70, 2013.
- [19] M. S. Lee & J. U.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mpathy Ability and Self-Resilience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22, No. 1, pp. 335-356, 2014.
- [20] K. J. Park & Y. J. Park,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go Resiliency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with a History of Abuse on School Life Adaptation-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46, No. 1, pp. 205-238, 2014.
- [21] H. S. Je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ladaptive Thoughts Ego-resilience and Aggression in Adolescents". MA disserta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3.
- [22] Y. J. Shin.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self-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 dissertation, G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2005.
- [23] D. H. Kim & S. H. Park, "Comparison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s and School Adjustment among Students in Special Classes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Research, Vol. 14, No. 2, pp. 5-29, 2008.
- [24] H. K. Koo & S. J.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Science-gifted High School Students' Perfectionistic Disposition and Support on their School Life Adaptation". Journal of Education Journal, Vol. 30, No. 1, pp. 51-83, 2011.
- [25] M. K. Kwak & B. J. Seo, "The Influence Which the Self-Flexibility and the Social Support Felt by the Teenagers living in the Grandparents-Children Families Have on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Journal of Pubic Welfare Administration, Vol. 21, No. 1, pp. 75-112, 2011.
- [26] Seung-Ok Shin, Jong Park, "Converged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Among Some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71-277, 2015.
- [27] Ji won Lee, Kyung-hee Kang,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of students according to school syste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4, pp. 69-74, 2014.

**박 성 주(Park, Sung Joo)**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문학 석사)
- 2008년 8월 :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교육학 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김천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상담, 교육
- E-Mail : ioadpsj@gimcheon.ac.kr